

## 한국판 조직배반 척도의 타당화: 조직 내 성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김 지 은

(주)상담사그룹서로오트  
이화여자대학교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외상경험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해에 가담하는 현상인 조직배반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기존에 조직 내 성범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인 그루밍(Grooming)과 가스라이팅(Gaslighting) 개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조직배반 이론은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 또는 권력형 성범죄 및 조직 내 성폭력에서, 피해자가 몸담고 있으며 신뢰했던 조직에게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입는 2차 피해의 양상을 확인하고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전반적인 사회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배반 이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조직배반 현상을 측정하고 적절한 개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Smith와 Freyd (2014)가 개발한 조직배반질문지(Institutional Betrayal Questionnaire-2: IBQ-2)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척도를 번안하여 한국판 조직배반 척도를 제작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요어 : 외상, 조직배반, 성폭력, 조직내성폭력, 권력형성범죄

\* 본 연구는 조직배반질문지(IBQ 2)의 원 저자인 Smith와 Freyd에게 한국판 타당화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

† 교신저자: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1-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2018년 초, 서지현 검사의 고발로 시작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뜨겁게 일어났던 한국의 #미투운동은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이미경 등, 2021). #미투운동 이전에도 SNS를 통해 #OO계\_내\_성폭력 등의 해시태그를 단 성폭력 문화에 대한 고발과 반성폭력운동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통해 만화계나 문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해있는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투운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권력형 성폭력, 혹은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얼마나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있으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는지 전국민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법적, 제도적인 부분은 여전히 미비한 곳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가해자의 역고소, 배제의 정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이미경 등, 2021). 이러한 사회적 문제 및 피해자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계의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외상 경험 이후에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았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조력자들이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등의 용어가 등장하여 점점 더 널리 사용되는 추세이나, 이제 막 용어들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개념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조직과 사회문화 내의 피해에 대한 이론의 필

요성도 대두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 조직배반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배반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까지 성폭력 관련 연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던 개념인 가스라이팅 및 그루밍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조직배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실제적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론적 배경

### 배반외상과 '배반에 눈감기'

조직배반 이론은 Freyd의 배반외상(betrayal trauma) 이론에 그 모태를 두고 있다. 배반외상 이론은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the Memory war'를 배경으로 발달한 이론으로, 근친 성폭력, 혹은 여기에서 더 확대되어 지인 강간(acquaintance rape)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 사회에서는 근친 성폭력은 고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존재마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폭력이나 학대로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다(Herman, 1981). 그러나 근친 성폭력이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양지로 드러나기 시작한 1980~1990년대에 그 영향으로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부모를 근친 성폭력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언론뿐만 아니

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주목받게 되었다.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던 많은 심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대해 ‘억압된 기억(repressed memory)’, ‘회복된 기억(recovered memory)’, ‘거짓/허위기억(false memory)’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이 과연 실제의 친족 성폭력 피해 기억이 맞는지, 신뢰할 수 있는 기억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Bremner, Krystal, Charney, & Southwick, 1996; Dallam, 2002; Lewis & Freyd, 2017; Loftus, 1996).

피해자들의 회복된 기억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이러한 형태의 기억이 실재한다는 입장의 선봉에 섰던 Freyd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신뢰해야만 하는 자신의 주양육자에게서 학대를 당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 즉 낯선 타인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와는 달리 피해를 받고할 경우 생존의 위협에 필적하는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Freyd, 1994).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며, 심지어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억압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Freyd, 1994; Freyd & Birrell, 2013). 이러한 현상을 Freyd는 ‘배반에 눈감기(Blind to betrayal)’라고 명명하였다(Goldsmith, Barlow, & Freyd, 2004; Freyd & Birrell, 2013).

이후 배반외상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모든 배반이 눈감기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배반은 본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배반외상을 겪고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Goldsmith, Barlow, & Freyd, 2004; Freyd & Birrell, 2013). 부모나 다른 강력한 인물이 인

간관계의 기본 윤리를 위반한다면, 피해자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신적 충격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Freyd, 1994). 즉 스스로 ‘알지만 모르는’ 상태가 된다. 특히 배반외상의 가해자에게 정서적, 혹은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눈을 감게’ 된다(Zurbriggen, 2005).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피해를 인식조차 할 수 없도록 조종할 수도 있다(Freyd & Birrell, 2013).

배반외상 이론은 바로 이런 종류의 대규모 망각과 비인식(非認識)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한다. 첫째, 인간은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 긴 양육기간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생존을 위해 강력한 애착 체계를 형성한다. 둘째,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인간에게 아주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체계가 부딪칠 때, 즉 애착 체계와 사회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자신이 의존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때 개인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이때 망각이나 비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Freyd & Birrell, 2013).

#### 조직배반 Institutional Betrayal

조직배반이란 조직이 그 조직에 의존하는 개인에 대해 행하는 해롭거나 부정하거나 위법한 행위(예: 성폭력)를 말하며, 해당 조직의 맥락 안에서 행해지는 개인에 의한 해롭거나 부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조직구성원인 피해자에게 지지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Smith & Freyd,

2014). 조직 내에서 외상경험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해에 가담하는 현상 모두 이러한 조직적 정의에 따라 조직배반에 해당한다. Smith와 Freyd는 배반외상 이론이 근친 성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데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대인간 외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점차 연구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개인과 개인의 맥락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Smith & Freyd, 2013). 즉 한 개인이 정서적,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이 반드시 다른 개인이 아니라 더 큰 조직체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표면상으로 개인 간에 발생한 외상 사건으로 보이는 것도 조직의 영향력이 더해져 개인 대 조직의 구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들 수 있다.

Smith와 Freyd는 오레건 주립대학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개인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보다, 한 개인이 일정 부분 이상 생존이나 생활을 의탁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다(Smith & Freyd, 2013). 이 결과를 바탕으로 Smith와 Freyd는 조직배반(Institutional betrayal) 이론을 발표하였다(Smith & Freyd, 2014). 조직배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우울 증상 외에도, 해리, 수면장애, 성적인 어려움, 낮은 자존감, 높은 자살시도율,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서의 부정적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nteith, Bahraini, Matarazzo, Soberay, & Smith, 2016; Smith & Freyd, 2017).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보다 지인에 의한 강간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그 해악 역시 크다는 연구 결과들(Warshaw, 1988) 역시 조직 배반의 틀로 새로이 바라봄으로써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조직이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즉 지인강간(Acquaintance Rape)의 경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성폭력 피해가 아니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짙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감싸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다(Warshaw, 1988; Krakauer, 2015). 미국의 경우 각 대학별로 미식축구팀이 있으며 팀의 주전선수들은 대학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 있는 도시 전체에서 영웅처럼 대우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영웅’들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관심받고 싶어서 접근한 꽃뱀’으로 취급되고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대학이나 지역사회에서 처벌받는 경우들도 발생하였다(Smith & Freyd, 2014; Warshaw, 1988; Krakauer, 2015).

이러한 현상을 개인 간 수준에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더 폭넓게 접근함으로써,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자신을 배반할 때 단순히 ‘2차 가해’라는 용어만으로는 충분히 포괄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심리적인 타격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mith와 Freyd는 조직배반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제시하였다(Smith & Freyd, 2013; Smith & Freyd, 2014).

#### 조직배반과 조직 내 성폭력

조직배반의 주체는 조직 내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조직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Smidt & Freyd, 2018). 조직 내의 구성원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201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권력형 성폭력’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예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조직 그 자체가 가해에 가담하기도 한다.

2016년에 발생한 ‘한샘 연쇄 성폭력 사건’의 경우 #미투운동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아주 전형적인 조직배반의 양상을 보여주는 권력형 성폭력, 혹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다(한겨레, 2017년 11월 6일자 기사). 처음에 피해자를 성폭행한 가해자들은 첫 번째 불법촬영 가해자인 피해자의 동기 외에는 조직 내에서 피해자보다 권력 위계의 상층에 있는 상급자들이었으며,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가해자들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하였으며, 실제로 피해가 밝혀진 후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피해자를 해고하는 데 가담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행하였다. 그런데 위력을 가진 개인 한두 명만 가해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조직 자체인 회사가 가해자들을 감싸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므로써 조직 역시 가해자가 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조직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마치 아동이 주양육자에게 생존을 기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 조직배반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장이며,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 사건을 조직배반 이론의 렌즈를 통하여 보면 개인 대 개인, 성인 대 성인의 사건으로 단순히 치환하여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양상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공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처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주고 피해자를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바로 상관에게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회유 및 입을 막으려는 시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MBC, 2021년 5월 31일자 기사).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상관들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센터까지도 사건을 누장 보고하여 피해자를 방치하였다는 정황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MBC, 2021년 6월 18일자 기사). 이는 단순히 ‘2차 피해’라는 용어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만큼, 조직이 조직구성원에게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군 성폭력의 피해자 중 5년차 미만의 중·하사가 58.6%로 최다 비율의 차지했다는 기사 보도는 조직배반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들과 피해자가 조직배반을 당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경향신문, 2021년 6월 21일자 기사).

이처럼 직장은 조직배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중 하나다(Freyd & Birrell, 2013). 피고용인이 일자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처지에서 고용주 혹은 자신의 조직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 피고용인은 생계유지와 폭력의 고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는 마치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학대를 가한 주양육자에게 느끼는 딜레마와 유사하다. 2018년 4월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로 열린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한다> 집담회에서도 유사한 발화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피해를 폭로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생계의 곤란에 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직면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과정이 법적 과정에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들 역시 이러한 피해를 방관함으로써 조직배반에 가담하기도 한다. Smith와 Freyd(2014)는 조직배반을 설명하면서, 조직이 적극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작위(作爲, commission)와 조직이(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 omission)의 두 축으로 설명한다.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이는 행위는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부작위에 가깝다. 그들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고 느끼지만, 이러한 방관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는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주변 직장동료들은 자신의 생계에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함에 눈을 감고 싶은 강력한 동기를 지니게 되며, 조직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결국은 조직에서 축출시킨다. 이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동종업계'로 표현되는 느슨한 조직체계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개인에게 행하는 배반과 '배반에 눈감기'는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지 않을 경우 점점 더 확대된다(Freyd & Birrell, 2013).

#### 조직배반이 일어나는 영역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으나, 성폭력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들의 경우 직업윤리나 직업적 명예, 양심, 개인적 가치 등을 추구하며 공익제보 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공익제보를 하기로 결심할 때는 어렵지만 이 행위로 인하여 조직이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자가 발견한 부패나 비리 행위를 조직이 조속하게 바로잡고 이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길 바란다(신광식, 박홍식, 2009).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다수의 공익제보자는 조직에서 거의 예외 없이 비방과 중상, 징계, 해고, 따돌림, 협박, 법적 조치 등 보복을 당하게 되고, 조직 내에서 공익제보자들의 동료 직원이었다던 조직구성원들도 이러한 가해에 가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보복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최대 스트레스원이 된다(Lennane, 1993; McDonald & Ahern, 2000; 신광식, 박홍식, 2009). Ahern은 공익제보자가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직배반과 가스라이팅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Ahern, 2018).

이 외에도 사법체계(Smith, Gomez, & Freyd, 2014)나 의료기관(Smith, 2017)에서, 그리고 해외 유학 중(Wright, Smith, & Freyd, 2017)에 경험하게 되는 조직배반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정부나 미국심리학회에 조직배반에 가담한 책임을 묻는 연구도 진행되었다(Gómez, Smith, Gobin, Tang, & Freyd, 2016).

#### 조직배반과 문화적 배반

최근 조직배반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트라우마 세대간 전이와 역사적 트라우마, 그리고 인종차별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역시 조직배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배반이면서도 동시에 하

나의 조직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전체 사회문화에 걸쳐 퍼져 있다는 의미를 담아 문화적 배반(Cultural betrayal)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다시 설명되고 있다(Cromer, Vasquez, Gray & Freyd, 2018; Gómez & Freyd, 2018; Gómez, 2019; Gómez, & Gobin, 2020).

Gomez와 Freyd(2018)는 이민자 및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로서 문화적 배반의상 이론을 소개하며, 동일한 경험(집단 내 성폭력)을 해도 소수자의 지위를 가진 피해자가 전반적인 외상 후 증상, 우울 증상, 수면장애, 성적인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Cromer 등(2018)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체계를 통한 트라우마의 세대간 전이를 검증한 결과, 역사적 상실에 대한 지각에서 조직배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을수록, 백인 주류 문화와 동일시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역사적 상실을 덜 지각하였다. 미국 내에서 흑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인종/민족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Gómez, 2017; Gómez, 2019; Gómez & Gobin, 2020; Gómez, 2021).

인종/민족 외에도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조직배반 및 문화적 배반외상도 점점 더 활발하게 연구되는 추세이다(Gómez, 2015). Smidt와 동료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소수자(LGB) 개인이 이성애자와 비교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과 그에 따른 조직배반 경험 여부를 연구하였으며, 지정성별과 성적지향에 따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비(非)이성애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성애 여성에 비해 조직

배반을 경험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조직배반을 더 크게 경험할수록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확률도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Smidt, Rosenthal, Smith, & Freyd, 2021).

### 조직배반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최근 성폭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젠더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가스등(Gaslight)>이라는 영화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Stern, 2018). 영화에서 가해자로 등장하는 주인공의 남편은, 끊임없이 주인공이 스스로를 '미쳤다고 의심하도록 만듦으로써 주인공보다 우위에 서고 주인공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점점 더 자신의 자아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며, 가해자에게 종속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용어를 제안한 Stern은 '쉽게 말해 정서적으로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행위(manipulation)'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며,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Stern은 이러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일어날 때, '혼란과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가해자(Gaslighter)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각력을 기꺼이 의심하는 피해자(Gaslightee)'가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볼 때, 적극적인 배반 행위를 저지르거나(작위) 혹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부작위) 것이 모두 조직배반이라는 개념 안에 포괄이 되며 행위와 그 결과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면, 가스라이

팅은 배반외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용하는 책략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가스라이팅 연구자들은 개인과 개인 차원에서만 이 개념을 사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성별을 포함한 사회적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가해자들이 성 기반의 고정관념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불평등을 동원할 때 가스라이팅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weet, 2019). 이는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 소수민족,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시선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배반 및 문화적 배반과 유사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및 학교 장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되도록 가스라이팅이 이용된다는 연구 결과(Wozolek, 2018) 등이 그 예이다. 이 외에도 백인 우월주의를 지속시키고 인종차별을 심화시키는 ‘인종적 가스라이팅 Racial gaslighting’ (Davis & Ernst, 2019), 또는 유색인종과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정신적 학대의 체계적 패턴으로 제시된 ‘문화적 가스라이팅 Cultural gaslighting (Ruíz, 2020; Sweet, 2019)’ 등, 이 용어 또한 조직배반처럼 점점 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 조직배반과 그루밍 성범죄

최근 ‘n번방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심각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경향신문, 2021년 4월 29일자 기사). 이에 2021년 2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6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상 위장수사,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범죄 공소시효 폐지, 3)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의 대화, 유인, 권유)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경향신문, 2021년 2월 26일자 기사).

그러나 아동·청소년만 그루밍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그루밍 성폭력도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조선일보, 2019년 5월 29일자 기사), 판결문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폭력이 언급되고 있다(한겨레, 2018년 8월 14일자 기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며, 성폭력에서 그루밍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범위,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국내 연구는 이제 막 실시되고 있는 상태다(김정연, 2019; 윤정숙, 2020).

그루밍 성폭력, 혹은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Craven, Brown, Gilchrist(2006)은 ‘학대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루밍을 정의하였으며, Tanner와 Brake(2013)는 ‘성착취의 기회를 늘리고, 피해자의 저항이나 중단(withdrawal)을 최소화하고, 공개나 믿음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행동의 패턴’으로 정의하였다(신현주, 오세연, 2020 재인용).

McAlinden(2012)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그루밍을 발생 맥락에 따라 가족 내(intra-familiar) 그루밍과 가족 외(extra-familiar) 그루밍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족 내 그루밍은 기준에 ‘친족 성폭력’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던 분류와 겹친다(윤정숙, 2020). 또한 McAlinden(2012)은 피해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도

소개하였는데, 각각 아동 그루밍, 가족 및 사회 그루밍, 시설/조직 내 그루밍(institutional grooming)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가족 및 사회 그루밍과 시설/조직 내 그루밍은 직접적인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아동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성인 및 환경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들의 순응과 신뢰를 얻어내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Craven, Brown, & Gilchrist, 2006; 윤정숙, 2020 재인용). 이러한 개념들은 아동의 주양육자, 혹은 신뢰하는 성인 보호자가 아동에게 외상을 가하는 배반외상의 개념 및 신뢰하던 공동체나 조직 내에서 피해를 목살하고 피해자 및 조직구성원들을 침묵시키는 조직배반의 개념과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그루밍 성폭력, 혹은 성적 그루밍은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조직배반과 차이점을 보인다. 그루밍을 7단계로 설명한 O’Connell(2003)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성적 그루밍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김정연, 2019; 윤정숙, 2020; Craven, Brown, & Gilchrist, 2006; O’Connell, 2003; McAlinden, 2012; Sinnamon, 2017). 예를 들어 Michel Welner는 아동성범죄에 이르는 그루밍의 6단계를 ① 아동의 취약성(감정적 결핍neediness, 고립, 낮은 자존감 등)을 측정하여 피해자 고르기, ② 아동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아동의 욕구를 알아냄으로써 피해자의 신뢰 얻기, ③ 피해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피해 아동의 삶에서 중요성을 갖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④ ‘특별한 관계’ 형성을 이용하여 둘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피해 아동 고립시키기, ⑤ 충분한 감정적 의

존과 신뢰의 단계에서 관계를 점차 더욱 성적(sexualizing)으로 만들기, ⑥ 성적 학대가 발생한 후 피해 아동의 지속적인 참여와 침묵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및 비난 등을 이용하여 통제 유지하기의 과정으로 설명한다(김정연, 2019). ‘과정’이자 가해자가 사용하는 책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루밍은 조직배반보다는 가스라이팅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루밍의 단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2차 피해는 조직배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배반외상 이론 및 조직배반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조직배반을 측정하는 척도인 조직배반질문지(Smith & Freyd, 2014)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 연구절차

문항을 번역하기에 앞서 원칙도를 개발한 Smith와 Freyd에게 구두 및 메일로 척도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번역·역번역 절차를 사용하여 원칙도의 문항들을 번안하여 예비척도를 완성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번역을 한 후, 미국에서 장기 거주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 1인과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1인이 토의하여 원칙도와 불일치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고 문항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해당 번역본을 토대로 미국에서 장기 거주 경험이 있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특성을 잘 알고 이중 언어구사가 가능한 상담 심리학 석사과정 1인이 역번역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3개의 예비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원척도와 달리 예비척도 문항은 4점 Likert 식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자가 '0점(전혀 아니다)'부터 '3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대상

전생애에 걸쳐 최소한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 만 19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529명에게 본 연구 내용에 대한 안내 후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연령, 최종 학력,

수입, 거주 지역 등 네 개의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함께 성폭력 피해 경험 체크리스트, 변안된 IBQ-2, K-SRQ, TAQ, PTCI, PDS, CES-D로 구성된 질문지에 응답했다. 이 중 조직의 맥락에서 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조직배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조직배반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대는 30~39세가 118명(25.5%), 49~49세가 116명(25.1%), 20~29세가 114명(24.7%), 50세 이상이 114명(24.7%)이었으며, 최종 학력은 대졸이 341명(73.8%)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88명(19.0%), 석사 이상이 33명(7.1%)이었다. 수입은 200~299만원이 151명(32.7%)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표 1.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조직배반

구분		N	%
조직 유형	학교	116	25.1
	동아리/동호회	44	9.5
	직장	270	58.4
	인턴/수습/수련기관	16	3.5
	종교단체	6	1.3
	군대	0	0.0
	학원	10	2.2
조직의 중요도 (성폭력 피해 이전)	전혀 중요하지 않았음	39	8.4
	약간 중요했음	199	43.1
	상당히 중요했음	177	38.3
	매우 중요했음	47	10.2
현재 소속 여부	예	97	21.0
	아니오	365	79.0
합계		462	100

서울이 155명(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 시가 124명(26.9%), 경기도가 115명(24.9%) 등이었다.

### 연구 도구

#### 성폭력 피해 경험 체크리스트

참여자들이 조직 내에서 경험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와 성폭력의 법적 정의를 기반으로 조직 내에서 경험한 성폭력 피해의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강간 미수, 강간 등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메시지 등), 불법촬영, 스토킹, 성희롱 등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않은 성폭력이 8가지 유형에 포함되었다. 피해 경험에 체크한 후에는 체크한 경험 중 참여자에게 주관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선택한 후 가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횟수, 피해 경험으로부터의 경과 시간 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 조직배반 척도(Institutional Betrayal

##### Questionnaire-2: IBQ-2)

Smith와 Freyd(2014)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배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조직배반질문지의 번안을 사용하였다. IBQ-2는 개인이 경험한 조직배반을 측정하는 체크리스트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원척도의 문항을 모두 살렸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와 달리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자가 '0점(전혀 아니다)'부터 '3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조직배반과 조직배반을 이루는 작위, 부작위의

두 가지 구성개념을 변별적이면서 연결되어 있는 하위요인으로 소개하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설명한 원저자들의 이론을 보다 심리측정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폭력 피해 이후, 또는 그 이전부터 경험한 조직배반을 측정하는 12문항과, 성폭력 피해 이전에 개인이 해당 조직을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측정하는 1문항을 포함하여 총 13문항의 예비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의 유형과 현재 응답자가 그 조직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이 개인의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개인을 배반했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 한국판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K-SRQ)

Ullman(2000)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타인에게 공개하였을 때 얻는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심기선, 안현의, 2014)를 사용하였다. K-SRQ는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외상 경험자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며 위로해주는 '정서적 지지',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실질적 도움')과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외상 경험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낙인찍기', 외상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기', 외상경험자를 대신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통제하기', 외상 경험자의 부주의를 탓하는 '피해자 비난하기', 외상경험자보다 자기에게 초점화되어 반응하는 '자기중심

적 반응)을 포함한 7개의 하위요인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77-.93,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64-.81로 나타나 양호한 범위를 보여주었다. SRQ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6-.96사이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 외상정서평가척도(Trauma Appraisal

##### Questionnaire: TAQ)

DePrince 등(2010)이 개발한 외상정서평가척도(Trauma Appraisal Questionnaire, 이하 TAQ)의 변안(장미수, 2011)을 사용하였다. TAQ는 외상 사건 경험 후 현재 경험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 외상 경험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정서들을 측정할 수 있다. 한국판 외상정서평가척도는 총 6요인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은 배신감('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제일 상처를 받았다.' 등), 자기비난('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등), 공포('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등), 소외감('나는 고독하다.' 등), 화('나는 분노한다.' 등), 수치심('더러운 기분을 씻을 수 없다.' 등)이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1(전혀 아니다)에서부터 5(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할 수 있으며, 각 하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77-.93,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64-.81로 나타나 양호한 범위를 보여주었다. SRQ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6-.96사이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 외상 후 인지 척도(Posttraumatic Cognitions

##### Inventory: PTCI)

Foa, Ehlers, Clark, Tolin와 Orsillo(1999)가 외상을 경험한 후의 외상과 관련한 사고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외상 후 인지 척도(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의 변안(안현의, 2005b)을 사용하였다. PTCI는 원 연구(Foa 등, 1999) 결과 '자기(self)에 대한 부정적 인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자기 비난'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으며, 각 하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인지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 연구에서 PTCI의 각 하위요인은 완벽한 내적 일치도와 좋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안현의(2005b)의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순서대로  $\alpha=.97$ ,  $\alpha=.88$ ,  $\alpha=.86$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7로 나타났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 Diagnostic Scale: PDS)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Foa, Cashman, Jaycox, & Perry(1997)가 개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를 안현의(2005)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DS는 PTSD 증상을 묻는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증상에 대해 최근 1달간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0점(전혀 없음)에서 3점(일주일에 5번 이상)'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총점을 기준으로 절단점수 20점 이상이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남

보라, 권호인, 권정혜, 2010). PDS의 내적 합치도는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의 원척도를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의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며,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등의 문항에 4점 척도(0점: 거의 드물게, 3점: 대부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경구 등(2001)의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척도를 구성할 문항을 선택하기 위해, 변안된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 내적합치도에서 부적절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문항 수준의 분석 후, 수집된 자료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이론적 구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평가 시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적합도 지수 중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뿐만 아니라 복잡성을 고려하는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홍

세희, 2000). *RMSEA*는 0.08미만의 값을 가지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TLI*와 *CFI*는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또한 조직배반과 관련 있는 준거변인들인 외상경험에 대한 사회적 반응, 외상정서, 외상 후 인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과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별 및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문항분석과 상관 분석을 위해서 SPSS 22.0이 사용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Amos 22.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변안된 문항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안된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 문항제거 시  $\alpha$ 값 및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이 0.5미만 또는 2.5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값을 갖거나, 표준편차의 값이 0.7이하인 문항을 양호도가 좋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하여 해당하는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탁진국, 2007). 또한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이 .3이하인 문항을 양호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 문항제거 시  $\alpha$ 값 및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다(McCoach et al., 2013; Nunnally, 1978).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가 0.38-2.57(SD=0.64-1.00)로 나타났다. 삭제

표 2. 번안된 척도의 13문항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내용
	IB_1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IB_2	그 사건을 흔한(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했다.
	IB_3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IB_4	내가 그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IB_5	내가 그 사건에 대해 말했을 때 부적절하게 반응했다.
	IB_6	내가 그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
	IB_7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다).
	IB_8	어떤 식으로든 내 경험을 부인했다.
	IB_9	내가 그 사건에 대해 말했을 때 나를 처벌했다.
	IB_10	그 사건이 내가 속한 집단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IB_11	내가 더 이상 그 집단의 소중한 구성원이 아니라는 듯이 대했다.
	IB_12	내가 그 집단에 계속 있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IB_13	그 사건을 겪기 전에, 그 소속 집단은 당신에게 중요했습니까?

될 문항 선정에 앞서 PDS점수가 10점 이상인 178명을 대상으로 문항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해 본 결과, 지속적으로 평균이 2.5 이상이며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낮은 IB\_6 (“내가 그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항간 상관분석을 통해 중복되는 문항이나 척도 내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간 상관관계가 .80이상이거나 .20이하인 문항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IB\_1, IB\_2, IB\_13 문항이 .20이하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문항들이 같은 하위척도로 묶인 문항들과는 적절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에서도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해당 문항들이 척도 내에서 내적합치도를 유의하게 떨어뜨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볼

때 원척도의 문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추후 외국과의 평행적인 비교 연구를 위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 삭제하지 않았다.

#### 조직배반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국판 조직배반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IBQ의 전반적인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선행연구와 조직배반이론을 바탕으로 조직배반의 1요인 모형과 작위-부작위로 나뉘는 2요인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모형들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원저자들의 경우 언제든 수정 가능한 질문지의 형식으로 만들고자 하였기에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조직배반의 이론적 근거에서 작위-부작위의 두 축이 등장하였고, Reffi, Pinciotti,

표 3. K-IBQ 모형의 적합도 (N=462)

모형	적합도 지수						
	$\chi^2$	<i>df</i>	<i>TLI</i>	<i>CFI</i>	<i>RMSEA</i>	<i>L (90%)</i>	<i>H (90%)</i>
1요인	486.562	54	0.723	0.773	0.132	0.121	0.143
2요인	252.338	53	0.87	0.90	0.09	0.079	0.102

Orcutt(2018)의 연구에서도 IBQ-2의 2요인 모형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1요인 모형은 자료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요인 모형은 적합도 지수인 *RMSEA*, *CFI*, *TLI*를 고려하였을 때 자료와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chi^2=252.338$ , *df*=53; *TLI*=.87; *CFI*=.90; *RMSEA*=.09). 이에 따라 K-IBQ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Reffi, Pinciotti, & Orcutt, 2018)

와 동일하게 2요인 모형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K-IBQ의 2요인 모형의 표준화 계수값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

한국판 조직배반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Reffi et al, 2018) 유사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기존의 표준화된 척도와 상관관계를 표 5

표 4. K-IBQ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수추정치 (N=462)

문항	요인	추정치			C.R.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IB_1	← 부작위	1.000	.469		
IB_2	← 부작위	1.443	.703	.170	8.494
IB_3	← 부작위	1.593	.831	.196	8.138
IB_4	← 작위	1.162	.724	.097	11.944
IB_6	← 작위	1.031	.618	.096	10.700
IB_7	← 작위	1.066	.666	.094	11.291
IB_8	← 작위	1.000	.591		
IB_9	← 작위	.767	.639	.070	10.961
IB_10	← 작위	1.142	.669	.101	11.325
IB_11	← 작위	1.194	.778	.096	12.506
IB_12	← 작위	1.240	.752	.101	12.244
IB_13	← 작위	.266	.192	.070	3.814

\*\*\*. *p*<0.01

표 5. 관련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462)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조직배반	3	39	15.91	6.53	.60	.06
사회적 반응(긍정)	19	95	62.12	15.21	-.45	.10
사회적 반응(부정)	25	109	55.76	17.13	.43	-.20
외상정서	57	242	147.90	36.52	-.23	-.31
외상 후 인지	33	206	99.02	39.79	.44	-.46
PTSD 증상	0	47	9.77	9.90	1.08	.48
우울	0	60	20.09	11.96	.67	.04

표 6.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N=462)

	1	2	3	4	5	6	7
1. 조직배반	1						
2. 사회적 반응(긍정)	-.27**	1					
3. 사회적 반응(부정)	.43**	-.32**	1				
4. 외상정서	.53**	-.31**	.59**	1			
5. 외상 후 인지	.43**	-.33**	.54**	.80**	1		
6. PTSD 증상	.39**	-.20**	.39**	.57**	.69**	1	
7. 우울	.33**	-.27**	.31**	.53**	.68**	.79**	1

\*\**p*<0.01

와 6에서 확인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외상경험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해에 가담하는 현상인 조직배반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기존에 조직 내 성범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인 그루밍(Grooming)과 가스라이팅(Gaslighting) 개념과 조직배반 이론이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직배반 이론의 모태가 되는 배반외상 이론을 소개하고 조직배반 이론이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정리하였다. 또한 가스라이팅과 성적 그루밍 관련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정의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이 개념들이 조직배반과 유사성을 갖는 부분과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개념들과 조직배반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직배반 현상을 측정하고 실무자, 혹은 연구자가 적절한 개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Smith와 Freyd(2013)이 개발한 조직 배반질문지(Institutional Betrayal Questionnaire-2: IBQ-2)를 국내에 도입하여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원저자의 허가를 얻어 원 척도를 번안하여 한국판 조직배반 척도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예비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생애에 걸쳐 최소한 한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 만 19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내용에 대한 안내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529명에 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령, 최종 학력, 수입, 거주 지역 등 네 개의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함께 성폭력 피해 경험 체크리스트, 번안된 IBQ-2, K-SRQ, TAQ, PTCI, PDS, CES-D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중 조직의 맥락에서 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조직배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판 조직배반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었던 이론을 설명하고, 성폭력 관련 연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던 다른 개념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피해당사자 및 피해자의 지원자들, 관련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이 조직 내 성폭력 피해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의 틀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차 피해'나 '2차 가해'처럼 기존에 사용되던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해악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조직 내 성폭력, 혹은 체계 내 성폭력의 특성과 피해자의 어려움을 조직이라는 변인을 놓고 구체화함으로써, 개인 내 변인 혹은 개인 간 변인에 집중하였던 기존 이론에 더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다 적합한 개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므로 관련 분야의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공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조직이 조직구성원인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이 어느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차 가해'나 '권력형 성범죄'라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보다 조직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직배반 이론을 적용하면 더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 관련 연구 분야 및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던 용어인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조직배반 이론과 비교하여 함께 정리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란을 줄이고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별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고통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기여 중 하나는 조직배반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조직배반 척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타당화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조직배반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새로운 척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을 넘어서, 그간 개념적인 수준에서 소개되어 왔던 조직배반의 구성요소를 한국 실정에 맞추어 작위와 부작위라는 심리측정적 구성개념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쳐 밝혀냈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이는 또한 이전에 유사한 심리측정적 절차를 시도한 Reffi 등(2018)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며 작위와 부작위의 2요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추후 이 척도를 이용하여 연구자 및 실무자 모두 조직배반 현상을 측정하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적절한 개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피해자도 스스로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을 심리적으로 타당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배반 이론이 다양한 영역과 사회적인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직배반을 측정하는 원척도가 심리측정적 속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였기 때문에 문항 및 요인구조의 적합도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원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는 존재하였으나, 이는 원척도를 만들고 조직배반 이론을 제시한 원저자들이 아닌 다른 연구자들이 이미 제시된 척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Reffi et al, 2018)이므로 이러한 한계점이 적절하게 수정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한국 실정에 더욱 적합하면서 심리측정적으로 보다 타당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원척도의 심리측정적 한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며 유사개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가 나타난 부분이 아직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개념적인 비교를 통해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 외에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을 더 많이 제시하기는 어려웠던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배반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형들이 등장할 수 있

도록 추후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언할 수 있다. 먼저, 조직배반을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 개관한 각각의 개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므로, 관련 변인 및 영향요인의 탐색을 통해 조직배반의 기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 연구를 위하여 조직배반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조직배반 이론의 이론적 구조와 심리측정적 속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조직배반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조직배반 척도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소개한 개념인 가스라이팅 및 그루밍 역시 아직 적합한 자기보고식 척도가 부재하므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척도들을 새로이 개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1.02.26.) “앞으로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화도 처벌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61758001&code=9104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61758001&code=910402).  
박광연 기자.
- 경향신문 (2021.04.29.) “n번방 자료 판매 중 성착취물은 여전히 팔리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150000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1500001&code=940100).  
탁지영, 이혜리 기자.
- 경향신문 (2021.06.21.). 군 성폭력 피해자, 5년 차 미만 중·하사가 58.6% 최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

- y/article/202106210924001. 박성진 기자.
- 김정연. (2019).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27(2), 31-60.
- 남보라 (2010).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 147-167.
- 신광식, 박홍식 (2009). 조직의 보복과 내부 고발자의 스트레스. *한국공공관리학보*, 23(1), 177-203.
- 신현주, & 오세연.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잠재적 성 착취 과정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범죄정보연구*, 6(2), 163-176.
- 심기선, 안현의 (2014). 한국판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K-SRQ)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26(2), 271-298.
- 안현의 (2005b).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1), 31-41.
- 윤정숙 (2020).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 및 처벌. *젠더법학*, 12(1), 1-22.
- 이미경, 장다혜, 정대현, 김선희, 김보화, 김수아, 추지현 (2021). *미투가 있다/있다: 끝나지 않는 변화의 연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장미수 (2011). 한국판 외상정서평가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조선일보 (2019.05.29.). PD수첩 “김현철 정신과 의사, 환자에게 그루밍 성폭력”.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0464.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0464.html). 안소영 기자.
- 조용래 (2012). 한국판 외상 후 인지 검사의 요인구조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 외상경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12(3), 369-391.
- 주혜선, 민지원, 김아영, 안현의 (2015). 주요 외상 정서의 한미 비교 연구: 외상정서평가 척도(TAQ)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5(3), 571-594.
- 한겨레 (2017.11.06.) *한샘 연쇄 성폭력 사건 총정리...여성들은 왜 분노했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7662.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7662.html). 박다해 기자.
- 한겨레 (2018.08.14.) *그루밍, 노 민스 노...안희정 무죄 판결에 동원된 젠더 용어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641.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641.html). 장수경 기자.
- Ahern, K. (2018). Institutional Betrayal and Gaslighting. *The Journal of perinatal & neonatal nursing*, 32(1), 59-65.
- Bremner, J. D., Krystal, J. H., Charney, D. S., & Southwick, S. M. (1996). Neural mechanisms in dissociative amnesia for childhood abuse: Relevance to the current controversy surrounding the “false memory syndrom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Craven, S., Brown, S., & Gilchrist, E. (2006). Sexual grooming of children: Review of literatu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2(3), 287-299.
- Cromer, L. D., Vasquez, L., Gray, M. E., Freyd, J. J. (2018). The Relationship of Acculturation to Historical Loss Awareness, Institutional Betrayal, and the Intergenerational

- Transmission of Trauma in the American Indian Experience.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49, 99-114.
- Dallam, S. J. (2002). Crisis or creation? A systematic examination of false memory syndrom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9(3-4), 9-36.
- Davis, A. M., & Ernst, R. (2019). Racial gaslighting.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7(4), 761-774.
- Foa, E. B., Cashman, L., Jaycox, L., & Perry, K. (1997). 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9(4), 445-451.
- Freyd, J. (1994). Betrayal trauma: Traumatic amnesia as an adaptive response to childhood abuse. *Ethics & Behavior*, 4(4), 307-329.
- Freyd, J. (1997). Violations of power, adaptive blindness, and betrayal trauma theory. *Feminism and Psychology*, 7, 22-32.
- Freyd, J. (1999). Blind to Betrayal: New Perspectives on Memory for Trauma. *The Harvard Mental Health Letter*, 15(12) 4-6.
- Freyd, J. J. & Birrell, P. (2013). *Blind to Betrayal*. 한국어판 제목: 나는 더 이상 너의 배신에 눈감지 않기로 했다. 책읽는수요일.
- Gómez, J. M., Smith, C. P., Gobin, R. L., Tang, S. S., & Freyd, J. J. (2016). Collusion, torture, and inequality: Understanding the action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s institutional betrayal.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17(5), 527-544.
- Gómez, J. M. (2017). Does ethno-cultural betrayal in trauma affect Asian American/Pacific Islander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outcome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5(6), 432-436.
- Gomez, J. M., & Freyd, J. J. (2018). Psychological outcomes of within-group sexual violence: Evidence of cultural betrayal. *Journal of Immigrant & Minority Health*, 20, 1458-1467.
- Gómez, J. M. (2019). What's the harm? Internalized prejudice and cultural betrayal trauma in ethnic minor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9(2), 237.
- Gómez, J. M., & Gobin, R. L. (2020). Black women and girls & #MeToo: Rape, cultural betrayal, & healing. *Sex Roles*, 82(1), 1-12.
- Gómez, J. M. (2021). Does gender matter? An exploratory study of cultural betrayal trauma and hallucinations in Latino undergraduates at a predominantly White univers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3-4).
- Herman, J. (1981). Father-daughter incest. *Professional Psychology*, 12(1), 76.
- Krakauer, J. (2015). *Missoula*. 한국어판 제목: 미줄라: 몬태나 대학교 성폭생 사건과 사법 시스템에 관한 르포르타주 - 강간은 어떻게 합리화되는가. 원더박스.
- Lennane, K. J. (1993). Whistle blowing: A health issue. *British Medical Journal*, 307(11), 667-670.
- Lewis, J. & Freyd, J. J. (2017). Recovered Memory. In A. Wenzel (Ed.) *The SAGE Encyclopedia of Abnormal and Clinical Psychology*. (pp 2811-2814).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oftus, E. (1996). Memory distortion and false memory creation. *Bulletin of the American*

- Academy of Psychiatry and Law*, 24(3), 281-295.
- MBC (2021.05.31.)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진 여군...“용서할 수 없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22163>.  
신재용 기자.
- MBC. (2021.05.31.)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약혼자까지 압박한 상관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22164>.  
강나림 기자.
- MBC. (2021.06.18.) 공군 성폭력 사건 유족,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 추가 고소.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26202>.  
정동훈 기자.
- McAlinden, A. M. (2012).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Institutional, Internet and Familial Dimens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McCoach, D., Gable, R., & Madura, J. (2013).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School and Corporate Applications*. NY: Springer.
- McDonald, S., & Ahern, K. (2000). The Professional consequences of whistleblowing by nurse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4(1), 15-27.
- Monteith, L. L., Bahraini, N. H., Matarazzo, B. B., Soberay, K. A., & Smith, C. P. (2016). Perceptions of institutional betrayal predict suicidal self directed violence among veterans exposed to military sexual traum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2(7), 743-755.
-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Theory: 2<sup>nd</sup> ed.* NY: McGraw-Hill.
- O'Connell, R. (2003). *A typology of child cyberexploitation and online grooming practices*. Cyberspace Research Unit,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 Reffi, A. N., Pinciotti, C. M., & Orcutt, H. K. (201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stitutional Betrayal Questionnaire, Version 2: Evidence for a two-factor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0886260518805771.
- Ruiz, E. (2020). *Cultural gaslighting*.
- Sinnamon, G. (2017). The psychology of adult sexual grooming: Sinnamon's seven-stage model of adult sexual grooming. In *The Psychology of Criminal and Antisocial Behavior* (pp. 459-487). Academic Press.
- Smidt, A. M., Rosenthal, M. N., Smith, C. P., & Freyd, J. J. (2021). Out and in Harm's Way: Sexual Minority Students'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After Institutional Betrayal and Sexual Assault.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30, 41-55.
- Smith, C. P., Gomez, J. M., & Freyd, J. J. (2014). The psychology of judicial betrayal. *Roger Williams UL Rev.*, 19, 451.
- Smith, C. P., & Freyd, J. J. (2013). Dangerous safe havens: Institutional betrayal exacerbates sexu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6(1), 119-124.
- Smith, C. P., & Freyd, J. J. (2014). Institutional betrayal. *American Psychologist*, 69(6), 575.
- Smith, C. P., Cunningham, S. A., & Freyd, J. J. (2016). Sexual violence, institutional betrayal, and psychological outcomes for LGB college student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2(4), 351.
- Smith, C. P., & Freyd, J. J. (2017). Insult, then injury: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 betrayal linked to health and dissociation. *Journal of*

-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6, 1117-1131.
- Smith, C. P. (2017). First, do no harm: institutional betrayal and trust in health care organizations.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 10, 133.
- Smidt, A. M., & Freyd, J. J. (2018). Government-mandated institutional betrayal.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 Stern, R. (2018). *The gaslight effect: How to spot and survive the hidden manipulation others use to control your life*. Harmony.
- Sweet, P. L. (2019). The sociology of gaslight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4(5), 851-875.
- Tanner, J., & Brake, S. (2013). *Exploring sex offender grooming*. Retrieved from. <http://www.kbssolutions.com/Grooming>.
- Warshaw, R. (1988). *Acquaintance Rape*. 한국어판 제목: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Acquaintance Rape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일다.
- Wozolek, B. (2018). Gaslighting queerness: schooling as a place of violent assemblages. *Journal of LGBT Youth*, 15(4), 319-338.
- Wright, N. M., Smith, C. P., & Freyd, J. J. (2017). Experience of a lifetime: Study abroad, trauma, and institutional betrayal.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2(1), 50-68.

1차원고접수 : 2021. 05. 12.

심사통과접수 : 2021. 06. 21.

최종원고접수 : 2021. 06. 30.

##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BQ-2: Focusing on intra-institutional sexual violence

Jeeun Kim

Soro Orot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Institutional Betrayal Theory is introduced, a phenomenon in which an institution does not adequately protect or rather participate in perpetration when trauma experiences occur, and explained how it differs from the concepts of grooming and gaslighting, which have previously been used to describe sex crimes. Institutional betrayal theory explains what difficulties victims face in recent hierarchical and intra-institutional sexual violence. It suggests that the need to set the direction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 in victims of sexual violence, seek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and suggest how the overall social culture should change. It is examined the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of a Korean version of the Institutional Betrayal Questionnaire (K-IBQ). To validate IBQ in Korea, item translation and back-translation, item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ere conducted in a 462 females who have experienced sexual violenc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2 factors structure of the K-IBQ and both factors were correlated one another. The K-IBQ factors were adequately related to the social reactions to trauma experience, posttraumatic cognition and psychological symptoms, supporting good discriminant and criterion validit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trauma, institutional betrayal, sexual violence, sexual violence in the institution, sexual a power-based sex crime

---

\* Soro Orot Institute - Counselor Group for Counseling and Education of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Issues